



이것은 멜빈목사님의 첫번째 책과, 그 책을 가지고 사역해 온 저의 글을 월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냐 멜빈대학교를 위해서는 영어로 만들고, 한국에서는 한글판을 만듭니다.

[2025년] 3월

## 평신도목회LPM과 PACE사역

평신도목회LPM/PACE는 1978년 미국의 멜빈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평신도의 목회적돌봄"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 서 언

"멜(이 책의 저자), 평신도 목회가 잘 되면, 자넨 직업을 잃게 될 거야!

자네가 개발한 평신도목회(Lay Pastors Ministry)는 결코 잘 될수 없어. 평신도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는 될수 없는 거야. 목회는 안수받은 목사의 일이야!"라고 길을 가던 친구 목사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오하이오 신시네티에 있는 칼리지 힐 장로교회(CHPC: College Hill Presbyterian Church)의 수많은 평신도들은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사역을 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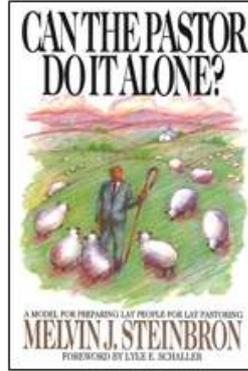
1978년 9월에 우리는 다섯 명의 평신도목회자(평목)를 선발하여 각자 5 내지 10가정을 돌보도록 하는 임상목회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로 평신도목회자(평목)의 숫자는 131명으로 늘어났고, 500가정을 돌보는 85개의 목회팀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목표는 성령으로부터 목회적 은사를 받은 평신도를 모집하고 훈련하여서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전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회를 개발한 우리들은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들, 실망스러운 일들, 힘겨운 일들, 그리고 많은 고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통해 드러난 효과적인 열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치있게 빛나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지역에서 몇개의 교파를 대표하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평신도목회자(평목)로 세우는 이 훈련에 참석하였다. 여러 교회들이 이 훈련세미나 안내서(Equipping Manual)나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했고 이 목회 모델을 채용하였다. 이 모델은 큰 교회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이 책을 쓰라는 출판사의 권유를 받은 후에 나는 이미 읽었던 평신도목회에 관한 다른 자료들과 책들을 참고하였다. 나는 덧붙일 것들이 무엇인지 찾기위해 그것들을 분석하였다.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내린 나의 결론은 이 책은 교회로 하여금 평신도드리 다른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평신도들을 훈련하여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지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 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음의 몇가지



© copyright 1987



© copyright 2001

이유가 있다:

1. 실제적인 조직을 뒷받침 하지 않은 채 목회사역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주장이 있으나, 그러한 목회사역의 공유는 교회의 전체사역이 되지 못하고, 사역의 일부가 될 위험이 있기때문이다.

2. 현재의 목회 프로그램들은 위기를 겪고 있거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도록 되어있지, 평소에 늘 목회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전체 성도를 섬기도록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목회사역을 위해 우수한 목회이론이나 신학이나 원칙들이 논리정연하게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양육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4. 여러가지 목회 방법들이 시도되었지만 시작에서 부터 실패하여 심한 좌절감과 무거운 죄 의식만을 남기며, 오히려 평신도목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1. 칼리지 힐 장로교회는 평신도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목회사역의 지난 8년간의 기록일지를 보면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 목회사역은 모든 성도가 계속적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육과 사랑이 필요하다.

3. 우리가 개발한 이 모델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다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훌륭한 책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이 책을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사역의 방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역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소개하고 싶다. 이 책에는 평신도가 어떻게 목회사역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나는 다음의 몇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 (중요한 사역에서 리더)

나는 한 교회에서 PACE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 후에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었는지 체크 하는 데에서 100% 동기부여 되었다는 교인이 있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류의 사역을 하고 싶어했으며, 이미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잘 돌봤고, 북부사들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서 이런 돌봄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주위에 이런 측면에서 동역자가 없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불타는 그런 마음이 서서히 시들어지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PACE 훈련을 통해 그런 불타던 마음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교회에서 PACE의 리더가 되었고, 나중에 그녀는 전국 사역자 중의 한 명이 되었고, 마침내 나가랜드에 PACE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 (그는 약속을 지켰다)

또 다른 예는 PACE 네트워크 교회의 한 목사에게서 들은 것이다. 어느 날 PACE 사역의 목회 리더인 김 집사가 목사관에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는 것인데, 그녀는 교회가 이 사역을 이끌도록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녀의 리더십을 통해 자존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내였고, 물론 그녀 자신도 평생 농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녀에게 이런 중요한 사역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었다.

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녀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는 30살도 안 되어 보였다. 어쨌든 그는 그 순간 아내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고엽제 환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매우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에게 아주 나쁘게 행동해왔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우리 앞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직접 말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약속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후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방문해서 뭔가 달라진 것을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다. 먼저 15~20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2층에 LPM 사무실을 꾸미고, 평신도사역자들이 늘 모인다는 것이었다. 내가 방문하면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또한, 앞마당에 예쁜 물고기들로 연못을 만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기도회 모임 중을 친다는 것이었다. 시골 교회의 전통적인 종소리인데, 그는 추운 겨울에도 새벽 4시에 교회에 와서 종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 5시에 교회에 와서 새벽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그는 PACE 사역을 통해 변했다.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수년간 그 약속을 지켰다.

## (평신도들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교회의 윤 권사님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어느 날 분당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에게 교회에서 PACE 사역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당시 약 5,000명의 교인이었다. 그녀는 PACE 사역과 평신도목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역을 그 교회에서 13년 이상 해냈던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평신도들은 이 사역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에 '희망'을 둔다. 그것은 교회에 희망을 주고, 그들 자신은 성장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다.

우리는 평신도들의 자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오해할 필요는 없다! 사실 그들은 목사의 손에 쥐어진 속박물이 아니다. 여기서 '자유'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재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 영적인 은사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멜빈은 27개, 존 맥스웰은 24개, 제임스 갈로우는 20개, 로널드는 15개의 은사, 등등이다. 주요 차이는 앱 4:11-12를 보는 시각인데,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또한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들을 영적인 선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이들은 또한 영적인 은사와 사역적인 은사를 구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나는 수년 전에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의 은사에 관해 확신한 적이 있다. 그때 나의 저의 은사가 지혜, 행정, 그리고 가르침이었다. 나는 전에는 나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그들의 은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주어진 사역을 위해 그들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말하는 '자유'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들은 평신도들이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부분의 평신도는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모르고,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다양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3~4개의 선물만을 생각하고, 또한 몇 개를 사용하지만, 성경에는 그 외 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영적인 선물이 교회에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일반적인 돌봄과 특별한 돌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도 평신도목회 핵심개념 중의 하나다. 이것은 전도하라는 설교와 실제 전도하는 것과 같이 다른 개념이다.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너무 평범하고 전체에게 하는 설교라서, 교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하면서, 결국은 아무도 하지 않게 된다.

평신도목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안녕하세요," 라고 가벼운 인사는 다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에서 잘하고 있고,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공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가 매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사정도에 그친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진정한 돌봄이 아니라, 단지 표면적인 인사치레 정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일반적인 돌봄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은 학위를 따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돌봄에 대한 관심은 거리가 멀다. CPE는 아시아시피 개인적인 돌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병원, 교정 센터, 요양원과 같은 특정한 곳에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센터들을 훈련 장소로 사용할 뿐 실질적인 돌봄에는 별 관심이 없다.

멜빈이 평신도목회를 발전시킨 이유는 스테판 사역처럼 개인적인 치유와 단기 돌봄이 아니라 개인적인 돌봄과 아울러 장기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개인의 보살핌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단적인 보살핌을 매우 잘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돌봄이 아니라 일종의 관리이다. 제자화 훈련은 굉장히 강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고하니 제자화는 대부분 10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 한사람이 10~12명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리일 뿐이거나, '일반적인 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

### (특별한 돌봄)

특별한 돌봄이란 무엇인가? 한 명의 사역자가 3~4명을 초과해서 맡아서는 안 된다. 그 숫자들보다 더 돌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별적인 돌봄을 통해, 사역자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을 매우 자세히 보기 때문이다. 멀리 밖에서는 그 사람을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더 자세히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토는 " 피부를 느끼는 사랑 " 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 사람들은 이런 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멜빈의 첫 번째 책을 본다면, 우리는 많은 실제적인 보살핌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돌봄이지만, 교회가 더 효과적이고 시너지를 내고 싶다면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성장과 교회 전체의 성장이 모두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룩과 같아서 교회에 스며들어야 하고, 그러면 시너지가 가능하다, 그것도 목사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개인들에게 좋은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것처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또한 지적 능력과 기술에서 향상할 필요가 있다.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여러 번 그의 글에서 모든 조직은 그 기관 자체보다도 직원 개개인에게 먼저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왜 조직이, 회사가 여기에 있는가? 오직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직원 개개인과 우리의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은 돌봄자 자신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실제적 경험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우리는 진정한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또한 현실을 보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 (돌봄에서의 함정)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한번은 다루어 본다. 일단 우리가 PACE 매뉴얼로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몇 가지 신중함을 언급한다. 하나는 돈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양 떼 가족과 돈을 주고받아서 안 된다, 그것이 PACE 매뉴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나는 또한 여러 번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했다.

물론, 우리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내 양떼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은 기억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격정된다. 이것은 나에게 항상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매우 심할 때 돈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때가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와 양떼 사이의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발견한 바로는, 우리는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찍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다. 나는 때때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역의 측면에서 우리는 사역에 약간의 재정을 기부해야 한다. 물론 나는 관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PACE 매뉴얼의 지시대로 너무 일찍 마음을 닫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사역, 모든 조직을 도울 수는 없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렇다. 멜빈이 충고한 대로 베푸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우리가 늘 너무 엄격하게 하면 모든 사역이 이를 달성할 수가 없다. 무엇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전혀 재정적 도움이 없다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역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었다.

### (멜빈대학교에 임상목회)

멜빈대학교에 임상 목회훈련을(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그룹 구성은 '여학생 1명에 남학생 6명' 으로, 우리 학교도 7명으로 제1기 그룹이 만들어져 시작하여, 초급과정(basic unit) 끝나고, 현재는 중급과정(Advanced)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전교생이 다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원제한으로 다음에 제2기를 또 한다 하고 설득들을 시켰다. 졸업 전까지만 받으면 되고, 졸업 후에 성적증명서 댈 때 거기에 이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발급된다.

나는오래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임상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가에 우드스탁과 윌비에서(Woodstock & Whitby) 초급, 중급과정을 마쳤는데, 처음 것은 정신지체인들의 센터였고(Mentally Retarded), 두 번째 것은 정신병원(Psychiatric Hospital)에서였다. 첫 번째 것은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학교에서 지정해준 곳이고, 둘째 것은 나 스스로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하여 7개월을 훈련받았다. 그 이후 2017년에, 인도 나가랜드의 PACE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훈련하면서 CPE Supervisor(지도감독) 될 필요성을 느껴 2년간 미국 CPE본부를 통해 마지막 훈련을 받고, 2018년에 정규 훈련자(Certified CPE Supervisor) 자격증을 받게 되었다.

금년초에 멜빈대학교 대학위원회에서 가볍게 소개했더니,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여 제1기 훈련을 1월~2월, 두 달간으로 마쳤다. 지금은 제1기 수료생들 중에 미래에 훈련감독자가(CPE Supervisor) 되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급단계 훈련(Advanced unit, 7개월간) 진행되고 있다. 내년 7월 말까지 고급단계(SIT: Supervisor in Training, 1년간) 마치고 8월, 제2차 멜빈대학교 개교 기념식에서 자격증을 공적으로 수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

케냐에는 64개 대학 중에 (University) 임상목회훈련을 실시하는 학교는 두 곳이다. 우리 멜빈대학교가 세 번째 되는 셈이다. 임상목회는 아직 아프리카에서는 생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빈대학교가 있는 호마베이(Homa Bay County) 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들 했다.

50여년전 미국 보스턴 쪽에서 의대생들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에서 유래되어, 미래에 목회할 신학생들도 졸업 전에 임상목회훈련을(CPE)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멜빈대학교의 임상 목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실패는 필요한가!



미국 평신도목회LPMI의 창시자 멜빈목사님은 실패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는 전제하기를 실패를 안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패로부터 배우면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실패해본 사람들도 많고, 또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임시적인 실패인 경우가 허다하다.

예로서 토마스 에디슨: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성공을 누린 에디슨은 유년기엔 선생님에게 "뭘 배우기에 너무 멍청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1,001번의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월트 디즈니: 세계적인 만화영화 회사 대표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는 1919년에 '캔자스시티 스타' 신문에서 해고되었는데 이 잡지의 편집장은 디즈니에게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빈센트 반 고흐: 그의 그림은 현재 몇백, 몇천만 달러를 호가한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었을 때는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이 없었다. 10년 사이 그는 약 900점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딱 한 개만 팔렸다. 그것도 친구에게 매우 싼 가격에...

실패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임시적실패와 영구적실패 (Temporary failure & Permanent failure). 임시적인 실패는 하루 자고 나면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임시적인 실패를 갖고 마치 영구적인 실패자가 된 것처럼 자신에게 낙인찍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임시적인 실패는 때로는 축복이요, 기회라고 봐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를 허락하신다고 하면 어불성설인가!

나는 최근 졸업식에서 우리학생들께 실패에 대해 가볍게 얘기한적이 있다. 졸업식장에서 너무 세게 하면 아낀것 같아서 살짝 터치만 해주었다. 그러나 집중해서 들었기에 내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한 내 얘기의 요지는, "실패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굳이 실패는 할 필요가 없지만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받아들이라는 의미였다. 더 나아가 실패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해주었다. 왜고하니 졸업생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모든게 다 될것같은 환상(비현실적인)에 사로잡혀 있을수도 있기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실패는 정말 실패자를 만드는것인가? 예로서 신대륙 어메리카를 발견한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부스. 그 때문에 우리는 신대륙에 대해 배우고, 또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것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날만 기다리고 있는 적도 있었다. 마치 실패자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이름은 많은 영광을 얻게 되었다. 지역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사용되었고, 캐나다에는 British Columbia, 심지어는 현재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도 공식 명칭은 워싱턴 D.C, 즉,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이라고 씌여진다.

결국 실패자라는 용어는 그리 쉽게 붙여질 호칭이 아니다. 콜럼부스와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임시적인 실패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 Melvin University

Kenya Africa since 2021



## 멜빈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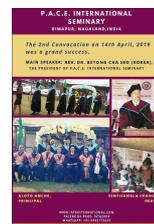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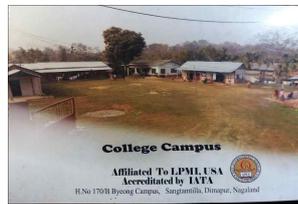
### Melvin University

P.O. Box 183  
 Zip Code 40222-Oyugis  
 Homa Bay County  
 Kenya, Africa  
 Tel: +254-113-760477  
[www.melvinuniv.org](http://www.melvinuniv.org)



# PACE Int'l Seminary

Nagaland India since 2015



## PACE 신학교

PACE International Seminary  
 Sangtamilla Village  
 Rangapahar crossing  
 Dimapur-797112  
 Nagaland, India  
 Tel: +91-70056-02847  
[www.pisnagaland.org](http://www.pisnagaland.org)

